

표준 발음법 교육 방향

강보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I. 들어가며
- II. 표준 발음법 교육의 실태
- III. 표준 발음법의 특성과 교육적 시사점
- IV. 표준 발음법 교육의 방향
- V. 나오며

I. 들어가며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 능력의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국어 능력’을 무엇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국어 기본법에서는 국어 능력을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등의 능력”(국어기본법 제3조 4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어 교육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내용적 정확성과 형식적 정확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형식적 정확성은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과 관련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법’¹을 따라야 하

1 배주채(2006: 70)에 따르면 ‘표준 발음법’이라는 말은 다음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표준적인 발음법, 둘째 표준 발음에 관한 법 또는 규정, 셋째 문교부에서 1988년에 고시한 『표준 발음법』이라는 어문 규범 등이다. 본고에서는 셋째의 의미로 ‘표준 발음법’을 사용하였다.

는 것이다. 특히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대원칙을 지닌 한글 맞춤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이다. 또한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황경수·송대현, 2013: 54), 우리나라 국민들은 표준 발음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국립국어원, 2012: 95-96)²을 고려할 때 국어 교육에서 표준 발음법을 교육하는 것은 분명히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 발음법 교육이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의 일부 규정을 이해하고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은 재고 할 필요가 있다. 표준 발음법 교육은 교육의 대상이 되는 표준 발음법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 발음법이 지닌 여러 특성 중 규범적 특성에만 주목하여 표준 발음법 준수만을 강조해 온 기존의 교육 방향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표준 발음법 준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표준 발음법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주요 특성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표준 발음법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표준 발음법 교육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표준 발음법의 특성과 그 특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고찰한 뒤, 이에 근거하여 표준 발음법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볼 것이다.

2 전국의 남녀노소 5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표준 발음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평균 4.2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II. 표준 발음법 교육의 실태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표준 발음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기존의 표준 발음법 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표준 발음법 관련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어 교과서에서 표준 발음법 단원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를 ‘독서와 문법II’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다.

1. 교육과정

표준 발음법은 7차 고등학교 ‘문법’ 교육과정에서 처음 다루어진 이후 2007 개정 고등학교 ‘문법’과 2009 개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에 계승되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³

표 1. 7차~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표준 발음법 관련 내용

| 교육과정 | 표준 발음법 관련 내용 |
|-------------------------|---|
| 7차 고등학교 ‘문법’ | 언어 생활의 통일성을 위하여 마련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 제반 규정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
| 2007 개정 고등학교 ‘문법’ |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 2009 개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 |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3 <표 1>은 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까지 살펴보면 표준 발음법을 다룬 내용을 더 찾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표준 발음법 교육의 경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설서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준 발음법과 관련하여 해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 발음법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 간략히 언급되었다. 그 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에 포함되어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핵심 내용은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표준 발음법 관련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다.

표 2.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표준 발음법 관련 내용

| 교육과정 | 표준 발음법 관련 내용 |
|-------------------------|--|
| 2011 개정 (중1-3) 학년군 ‘문법’ | 음운 변동을 탐구하여 발견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
| 2011 개정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음운 교체를 통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표현 효과(예: 깁감-叩叩-깜깜, 알록달록- 얼룩달룩)를 알아보고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괴리를 조사해 올바른 발음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은 없으며, 음운 변동을 표준 발음법과 연계하거나⁴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괴리를 다루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표준 발음법을 직접적으로 다룬 이전의 교육과정과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표준 발음법을 다루어 온 양상을 볼 때, 문법 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표준 발음법 교육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그 위상이 크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만을 강조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의 원리는 총칙 1항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만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교

4 이는 성취기준의 수를 줄여야 했던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독자적인 성취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관련된 음운 변동과 엑은 것으로 보인다.

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에서도 표준 발음법의 교육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교과서

교과서에서 표준 발음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4종의 ‘독서와 문법II’ 교과서를 분석하였다.⁵ 각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독서와 문법II’ 교과서별 표준 발음법의 학습 목표

| 교과서 | 학습 목표 |
|-----|-------------------------------------|
| A |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
| B |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
| C |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
| D |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학습 목표의 경우, 4종의 교과서 모두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교육과정에서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이해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도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사용을 학습 목표로 설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의 경우, 교과서마다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 표준 발음법 규정이 달랐는데, 이를 교과서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음영 표시한 것은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함).

5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준 발음법을 성취 기준상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독서와 문법II’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4. '독서와 문법II' 교과서별 학습 내용

| 대분류 | 항목 | 세부 내용 | 교과서 | | | |
|-----------|-----|---------------------|-----|---|---|---|
| | | | A | B | C | D |
| 1장 총칙 | 1항 |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 | | | | |
| | 2항 | 자음의 종류 | | | | |
| 2장 자음과 모음 | 3항 | 모음의 종류 | | | | |
| | 4항 | 단모음의 종류 | | | | |
| | 5항 | 이중모음의 발음 | | | | |
| 3장 음의 길이 | 6항 | 첫음절의 긴소리 | | | | |
| | 7항 | 긴소리의 예외 | | | | |
| | 8항 | 받침소리 | | | | |
| | 9항 | 평파열음화 | | | | |
| 4장 받침의 발음 | 10항 | 자음군 단순화 - 뒷 자음 틸락 | | | | |
| | 11항 | 자음군 단순화 - 앞 자음 틸락 | | | | |
| | 12항 | 받침 ㅎ의 발음 | | | | |
| | 13항 | 형식형태소 앞 홀받침의 연음 | | | | |
| | 14항 | 형식형태소 앞 쌍받침의 연음 | | | | |
| | 15항 | 절음(絶音) | | | | |
| | 16항 | 한글 자모 이름의 받침 발음 | | | | |
| 5장 음의 동화 | 17항 | 구개음화 | | | | |
| | 18항 | 비음동화 | | | | |
| | 19항 | 'ㄹ'의 비음화 | | | | |
| | 20항 | 유음화 | | | | |
| | 21항 | 허용하지 않는 위치 동화 | | | | |
| | 22항 | 모음 순행동화 | | | | |
| 6장 경음화 | 23항 |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 | | | |
| | 24항 | 어간 받침 'ㄴ, ㅁ' 뒤의 경음화 | | | | |
| | 25항 | 어간 받침 'ㅋ, ㅌ' 뒤의 경음화 | | | | |
| | 26항 | 'ㄹ' 받침 한자어 뒤의 경음화 | | | | |
| | 27항 | 관형사형 '-(으)ㄹ' 뒤의 경음화 | | | | |
| | 28항 | 사이시옷과 관련된 경음화 | | | | |
| 7장 음의 첨가 | 29항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의 'ㄴ' 첨가 | | | | |
| | 30항 | 사이시웃이 붙은 단어의 발음 | | | | |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마다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 표준 발음법 규정은 다르지만, 학습 내용으로 표준 발음법 규정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⁶ 즉 다루고 있는 표준 발음법 규정의 범위와 수준만 차이가 있을 뿐, 학습 내용이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표준 발음법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기존의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 교육이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그 근거를 표준 발음법 교육의 핵심 대상인 ‘표준 발음법’의 특성에서 도출하였는데, 다음 장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주요 특성과 각 특성이 지니는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표준 발음법의 특성과 교육적 시사점

표준 발음법의 특성으로 첫째,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는 점, 둘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정책의 산물이라는 점, 셋째 현실 발음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 의미하는 바와 그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6 교과서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 탐구 문제, 날개 등에서도 표준 발음법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만이 제시되고 있다.

1. 준수해야 할 규범

표준 발음법이 하나의 규범이라는 것은 표준 발음법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어 교육에서도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표준 발음법에는 발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이진호, 2012: 18), 표준 발음법은 표준 발음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고 있는 규정들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금까지 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표준 발음법 교육도 바로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30개 항에 이르는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제한된 문법 시간에 모두 학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표준 발음법의 주요 규정을 선택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표준 발음 규정이 무엇인지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⁷

7 전술한 대로 교과서마다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 표준 발음법 규정이 다양한데, 이는 어떤 규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표준 발음법 규정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 정책의 산물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의 2부에 속하는 규정으로서, 1988년에 제정되어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⁸ 즉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의 1부인 ‘표준어 사정 원칙’과 달리 1988년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규정이었다. 이는 표준 발음법이 우리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규정은 아님을 의미한다. 실제로 다음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국가 차원에서 제정하고 있지 않다(국립국어원, 2012: 43).

표 5. 외국의 표준 발음 정책 및 현황

| 구분 | 표준어 공용어 여부 | 표준 발음의 규정 여부 | 표준 발음 지역어 | 표준 발음 규정 수단 | 표준 발음 총괄 기관 | 표준 발음 명칭 |
|-----|------------|--------------|------------------------|------------------------------|------------------------------|----------------------------|
| 일본 | × | × | 방송용어 | NHK 일본어 발음 악센트 사전 | × | 공통어 |
| 중국 | ○ | ○ | 북경어 | 한어병음·표준어 異讀詞 심음표(普通話 异讀詞審音表) | 국가언어 문자공작 위원회(國家言語 文字工作 委員會) | 보통화 (普通話) |
| 미국 | × | × | 중부방언 (Midland Dialect) | 방송, 언론, 학교, 문법서, 활용서 등 | × | 표준 영어 (General American) |
| 프랑스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독일 | ○ | ○ | 하노버 지역의 독일어 | 표준 발음 사전 (DUDEN 발음 사전) | × | 표준 발음 (Standard-ausprache) |

8 표준 발음법은 사업 준비기(1968년 10월~1970년 4월), 기초 자료 조사기(1970년 5월 ~1972년 12월), 규정안 제정기(1973년 1월~1979년 12월), 규정안 검토기(1981년 5월 ~1984년 12월), 새 규정안 제정기(1985년 2월~1987년 4월), 새 규정안 보완기(1987년 4월~1987년 12월), 규정안의 공포 및 완성기(1988년 1월~1990년 9월)를 거쳐 완성된 규범이다(이진호, 2008).

| | | | | | | |
|----|---|---|-----------|--------------------------|---|-------------------------------|
| 영국 | × | × | BBC 영어 | BBC 발음부, 영국식 영어 발음 사전 | × | RP(Received Pronunciation) |
|----|---|---|-----------|--------------------------|---|-------------------------------|

<표 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용어로 표준어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발음법은 따로 제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위해서 표준 발음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문화된 규정으로서의 표준 발음법이 없어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표준 발음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언어 환경에서는 표준 발음법이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준 발음법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 정책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름의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표준 발음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언어 환경과 국민의 언어생활, 국가의 언어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국어 발전을 위해 표준 발음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

표준 발음법이 현존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은 필요한 것이고, 국어 교육에서는 표준 발음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다. 표준 발음법이 현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을 보여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과 시대착오적인 법률은 폐지가 필요하듯, 만약 표준 발음법이 오늘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언어 공동체에게서 얻지 못한다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김선철(2004)과 신지영(2006)에서 와 같이 표준 발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정 자체라기보다는 표준 발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전이라면서 표준 발음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전 이 외에 표준 발음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배주채, 2006; 이진호, 2012; 국립국어원, 2012 참조).

- 표준 발음법은 표준 발음 사전을 편찬하는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 표준 발음 사전은 표준 발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결과형을 제시할 뿐이므로 표준 발음법을 대체할 수 없다.
- 발음을 설명하는 등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 외국인에게 한국어 표준 발음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표준 발음법은 필요하다.
- 국어 어휘의 표준 발음을 모두 보여 주려다 보면 발음 사전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실용성이 떨어진다.
- 발음의 규칙성을 내버려 두고 예 하나하나를 사전에서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국어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언어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 사전에서 보여 줄 수 없는 표준 발음은 표준 발음법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개별 단어의 발음은 발음 사전이 보완하고 대신 발음 사전의 발음 정보 중 규칙적인 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해 줌으로써 어느 하나만 존재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표준 발음법이 우리나라의 언어 환경과 국민의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위해 필요한지, 아니면 사전에서 제시되는 표준 발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나름의 근거를 들어 논의해 볼 수 있다. 가령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표준 발음법의 의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제기〉

- 표준 발음을 사전에서 확인하면 되지, 굳이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가?
- 한 번 규범으로 정해지면 개정이 어려운 표준 발음법 때문에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 다른 나라에서는 표준 발음법이 없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가?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제기〉

- 표준 발음의 원리를 사전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 표준 발음법을 통해 발음의 원리를 학습하면 언어생활이 편리해지지 않는가?
- 표준어를 규정으로 정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발음법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는가?
- 북한도 독자적인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였는데⁹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표준 발음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처럼 표준 발음법은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에 대해, 표준 발음법을 둘러싼 언어 환경과 언어생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국어 교육, 특히 표준 발음법을 다루는 주된 영역인 문법 교육이 국어 현상을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어를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게 간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표준 발음법을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언어 정책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3. 현실 발음과의 차이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는 현실 발음과 차이가 있을 때, 언중들은 표준 발음법을 따르기보다는 현실 발음을 그대로 지속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기 쉽다. 이는 의사소통에서 발음은 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발음은 표기에 비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속 기간

9 북한은 1966년에 발간한 ‘조선말규범집’부터 ‘문화어발음법’이란 것을 제시하였으며, 오늘날에도 독자적인 표준 발음법을 가지고 있다(민현식, 1999: 343 참조).

이 짧기 때문에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보다는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발음이 언중 사이에서 용인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¹⁰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표준 발음법 중, 대다수의 언중이 사용하는 현실 발음과 차이가 나는 규정은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일치 정도는 언중이 표준 발음법을 어느 정도 성실히 준수할 것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처음부터 당시의 현실 발음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든지(이현복, 1987; 김선철, 2004; 안병섭, 2010 참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의 발음이 제정 당시의 발음과 달라졌기 때문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 간의 차이가 존재하여 언중이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게 발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국립국어원, 2012 참조).

표 6.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

| 구분 | | 빈도(명) | 비율(%) |
|-----|-------|-------|-------|
| 밟다가 | (발따가) | 238 | 47.2 |
| | (밥따가) | 211 | 41.9 |
| | 모두 가능 | 55 | 10.9 |
| | 전체 | 504 | 100 |
| 읽더라 | [일띠라] | 233 | 46.2 |
| | [익띠라] | 219 | 43.5 |
| | 모두 가능 | 52 | 10.3 |
| | 전체 | 504 | 100 |
| 선릉 | (선능) | 310 | 61.4 |

10 예컨대 ‘꽃이’를 ‘꼬시’로 잘못 적는 경우보다 [꼬치]를 [꼬시]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정도가 더 약하다. 또한 ‘꼬시’로 적은 문서는 기록으로 남으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꼬시]라고 발음한 것은 발화 이후 사라지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간에 용인 정도가 높다.

| | | | |
|----|-------|-----|------|
| 선릉 | {설릉} | 146 | 28.9 |
| | 모두 가능 | 49 | 9.7 |
| | 전체 | 505 | 100 |

<표 6>을 통해 유추해 보면 ‘밟다’, ‘읽다’, ‘선릉’의 경우 현실에서는 표준 발음인 [밥따], [익따], [설릉]보다 비표준 발음인 [발따], [일따], [선능]으로 더 많이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표준 발음법이 현실 발음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습자의 발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발음이 표기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자신의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바꿔 쓰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¹¹ 따라서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표준 발음을 요구하는 공적인 상황에서는 능동적으로 표준 발음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표준 발음법에 대한 주체적 태도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표준 발음법이 제정될 시기에 당시의 현실 발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음이 변화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표준 발음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결정해도 되는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현실에서 널리 사용되는 발음을 그대로 고수해도 되는지, 표준 발음법을 현실 발음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지, 표준 발음법 교육을 통하여

11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평소에 하시는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표준 발음으로 바꿔 쓸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에서 3.61점의 낮은 결과가 나왔다(국립국어원, 2012: 96).

잘못 발음되는 현실 발음을 교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해 봄으로써 표준 발음법과 복잡하게 얹혀 있는 발음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방향은 문법 교육에서 지향하는 ‘언어적 주체’ 형성과 부합한다. ‘언어적 주체’는 어떤 언어 문제 혹은 언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현상에 관심을 가져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신명선, 2007: 450). 문법 교육 내에서 실시되는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도 학습자를 표준 발음법대로만 발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소극적인 주체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에 주목하고, 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지,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의 다른 사이에서 자신은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길러 내야 할 것이다.

IV. 표준 발음법 교육의 방향

이 장에서는 III장에서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을 토대로 표준 발음법 교육의 방향을 ‘수용’과 ‘적용’의 관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표준 발음법의 수용 능력 향상

표준 발음법의 수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표준 발음법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표준 발음법이 현실 발음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1) 표준 발음법의 사실적 이해

표준 발음법의 사실적 이해는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총 30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발음법의 모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문법 교육에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할 필요가 있다.

먼저 표준 발음법의 규정 중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보여 주는 제1항은 표준 발음법 전반을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학습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이 지니는 정확한 의미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독서와 문법II’ 교과서 중에는 규정만 제시한 채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발음’, ‘전통성’, ‘합리성’과 같은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실제 발음’은 오늘날의 발음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을 제정할 당시의 현실 발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표준 발음법이 오늘날의 현실 발음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준 발음법의 사실적 이해를 돋기 위해서 2항부터 30항까지의 규정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자가 발음 오류를 잘 범하는 규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표준 발음법 교육은 학습자가 표준 발음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것

을 주된 학습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¹² 김평원(2004: 14)에 따르면 학습자의 발음 중에는 모음 음가의 혼란, 장단음의 혼란, 음절말 자음 발음의 오류, 잘못된 음운 동화 현상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표준 발음법 2장, 3장, 4장, 5장은 학습자의 발음 오류 교정을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중 3장의 ‘음의 길이’를 오늘날 장단음 구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으로 선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¹³ 둘째, 음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관련이 깊은 규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진호(2012: 49)에서는 교과서에서 음운 교육과 관련하여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순수 음운 현상’이 되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 ‘평파열음화, 자음군 단순화, 경음화, 비음화, 유기음화’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4장(9항, 10항, 11항, 12항), 5장(18항), 6장이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셋째,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표준 발음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음운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 중 표준 발음법과 관련하여 유의 미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은 표준 발음법의 사실적 이해를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의 발음, ‘-’와 ‘-’의 발음 등을 음운 교육

12 학습자가 어떤 발음을 자주 틀리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오류가 빈번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신승용(2003: 101-102)에서는 다음의 단어들에 대한 오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안은 학생들의 잘못된 발음을 의미함).

ㄱ. 넓고/넓지[넓고/넓찌], 밟고/밟지[발꼬/발찌], 읽고/읽지[익꼬/일찌]

ㄴ. 닦이/닦을[다기/다글], 값이/값을[가비/가불]

ㄷ. 광한루[광한누], 음운론[음울론], 문래동[문내동]

ㄹ. 종착역[종차격], 복막염[봉마겸], 영양가[영냥끼]

ㅁ. 김밥[김뺨], 비빔밥[비빔뺨], 생돈[쌩돈], 효과[효꽈]

ㅂ. 옷 한 벌[오단벌], 낫 한때[나단때], 꽃 한 송이[꼬단송이]

13 배주채(2006: 77)에서는 표준 발음의 실질적인 전도사인 국어 교사들조차 장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이고 장단 구별의 소멸이라는 언어 변화의 대세를 막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지금의 언어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3장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으나 표준 발음법을 통해 정확한 발음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2) 표준 발음법의 비판적 수용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표준 발음법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정책을 보여 주고 국민의 언어생활을 돋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규정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문제점¹⁴과 현실 발음과의 괴리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견과 현실 발음의 변화를 수용하여 계속해서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보선(2013: 6)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사회적 약속’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맞춤법을 이해하고, 현행 맞춤법이 제정된 시대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언어 현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행 맞춤법의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약속’인 표준 발음법을 교육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도 현행 표준 발음법이 제정된 당시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표준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행 표준 발음법의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¹⁵ 이처럼 표준 발음법

14 표준 발음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현식(1999), 신지영(2006), 김봉국(2008), 이진호(2009), 국립국어원(2012)을 참조.

15 국립국어원(2012)에서는 표준 발음법이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사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해서 표준 발음법을 유지하되 현실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 발음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 표준어에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듯이 발음에 있어서도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 변화하는 언중의 발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 한계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해 보는 것은 표준 발음법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표준 발음법의 의의와 시대적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표준 발음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해 학습자는 표준 발음법을 맹목적으로 준수하는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표준 발음법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문법 교육에서 추구하는 ‘언어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표준 발음법을 통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2. 표준 발음법 적용 능력 향상

표준 발음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 발음법을 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러운 발화 맥락을 이용하여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표준 발음법의 실천 태도 형성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 표준 발음법 실천 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발음은 표기와 비해 구속력이 약하고 짧은 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의 발음 습관대로 발음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서 표준 발음에 신경 쓰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때 실천 태도를 여러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표준어 규정에 명시된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알고 구어 상황에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자신의 국어 생활에 적용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를 길러 주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 표준 발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표준어 구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부터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처럼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표준 발음법 적용 기회 제공

학습자들에게 표준 발음법을 학습한 후 규정에 맞게 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틀리기 쉽거나 혼돈하기 쉬운 발음의 경우 표준 발음법에 근거하여 올바로 발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개별 단어의 발음을 탈문맥적으로 제시하거나 표준 발음을 표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목표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 또는 담화 안에서 목표 단어를 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인 발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의 (가) 활동은 (나) 활동으로의 변환이 요구된다.

(가) 다음 단어를 표준 발음법에 유의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자.¹⁶

- 연계[], 혜택[], 주의[], 우리의[]
- 흙과[], 묽고[], 여덟[], 밟고[], 읊다[]

16 D 교과서의 46쪽 ‘적용하기’ 문제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나) 다음 단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적고 그대로 발음해 보자.

- 축제를 위해 다른 동아리와 연계[]를 추진했다.
-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
-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흙과[] 물과 빛이 중요하다.
- 팥죽은 묽고[] 약간 싱거웠다.
- 우리 축구팀에 여덟[] 명이 새로 참여하였다.
- 책을 밟고[] 다녀서는 안 된다.
-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시를 읊다[].

(가)는 이중모음 ‘ㅕ’의 발음, ‘의’의 발음, 겹받침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 관련된 단어의 표준 발음을 적어 보는 활동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단어가 독립적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드물고 문장과 담화 안에서 발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나)와 같이 문장 안에서 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가)는 표준 발음법에 맞게 적어 보는 활동에 머무르고 있으나 학습자가 표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 발음법대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감안하면,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에 맞게 실제 발음해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나)와 같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나오며

국어 교육, 특히 문법 교육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후 표준 발음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을 단순히 이해하

고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만 인식하여 가르쳤을 뿐, 표준 발음법이 지닌 다양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표준 발음법은 국가에서 제정한 규범이기 때문에 국어 교육에서도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돋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 이 표준 발음법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표준 발음법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정책의 산물이며, 현실 발음과의 차이를 내재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특성 또한 교육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문법 교육이 규범을 맹목적으로 준수하는 수동적 학습자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언어적 주체로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어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학습자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를 단순히 규범의 준수자로 제한한 기존의 표준 발음법 교육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표준 발음법 교육은 표준 발음법의 사실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표준 발음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표준 발음법을 고려하여 발음하고자 하는 실천 태도를 형성하도록 돋고, 자연스러운 발화 맥락에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표준 발음법 교육은 주로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일부 다루는 것에 만족해 왔다. 교과서에서도 소수의 규정만 간단히 제시하고 나머지는 부록에 싣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수준에서 표준 발음법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생각한다면 표준 발음법 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4. 7. 31. 투고되었으며, 2014. 8. 6. 심사가 시작되어 2014. 8.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보선(2013),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3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pp. 1-30.
- 국립국어원(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김남미(2010), 「대학생을 위한 ‘표준 발음법’ 교육 원칙」, 『서강인문논총』 29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49-177.
- 김봉국(2008),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표준어 규정(제2부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9(1),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pp. 151-174.
- 김선철(2004), 「표준 발음법 분석과 대안」, 『말소리』 50, 대한음성학회, pp. 23-39.
- 김평원(2004), 「포먼트(formant) 및 <표준발음법>을 통한 국어 발음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배주채(2006), 「표준발음법의 이상」, 『어문연구』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69-92.
- 신명선(2007),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pp. 423-458.
- 신승용(2003), 「표준발음의 실제와 표준발음법 교육의 필요성」,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97-116.
- 신지영(2006),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pp. 133-158.
- 안병섭(2010),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현실음과 국어의 전통성 및 합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pp. 123-141.
- 이진호(2008), 「국어 표준 발음법의 제정 과정」,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pp. 173-203.
- _____ (2009), 『음운교육 변천사』, 박이정.
- _____ (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 이현복(1987), 「한국어 표준발음 실태 조사」, 『말소리』 11~14, 대한음성학회, pp. 13-57.
- 조창규(1996), 「국어의 표준발음법과 그 교육」, 『원광대 논문집』 17, 원광대, pp. 41-64.
- 황경수 · 송대현(2013), 「표준 발음법 규정 인식 실태와 오류 양상—충북 지역 경상대, 이공대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제47집,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53-82.

분석 대상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1997-15호(별책05).
- _____ (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05).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국어과 선택과목 개정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_____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05).
- 윤여탁 외(201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 (주)미래엔.

이남호 외(201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 비상교육.

박영목 외(201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 천재교육.

이삼형 외(201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II』, (주)지학사.

표준 발음법 교육 방향

강보선

본고에서는 기존의 표준 발음법 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표준 발음법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실태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표준 발음법 교육이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한정되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특성을 준수해야 할 규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 정책의 산물, 현실 발음과의 차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각 특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으로 표준 발음법 교육에서는 표준 발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강조되어야 하고, 표준 발음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언어 정책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으며,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표준 발음법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IV장에서는 III장의 내용에 기반하여 표준 발음법의 교육 방향으로 표준 발음법의 사실적 이해와 비판적 수용을 통한 수용 능력 향상과, 표준 발음법 실천 태도 형성과 표준 발음법의 적용 기회 제공을 통한 적용 능력 향상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교육, 준수해야 할 규범, 언어 정책의 산물, 현실 발음과의 차이

ABSTRACT

The direction of education of the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Kang Bosun

This study investigated critically the existing education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and discussed the direction of education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For this, I investigated the education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have been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rule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through curriculum and textbook in the chapter II. And I labeled the characteristic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as regulation which is needed to follow, product of own language policy of Korea, the gap with real pronunciation, and I deducted educational implication from those characteristic in the chapter III. Finally I discussed the direction of education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on the basis of the chapter III in the chapter IV. I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acceptive competence through realistic understanding and critical acceptance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and the improvement of applying competence through attitude formation and provide of application opportunity as the direction of education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KEYWORDS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education of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regulation which is needed to follow, product of language policy, the gap with real pronunciation